

오 마주 보다

등장인물

서화

지아

엄마

선생님

김민지

서화: 오늘은 또 무슨 사진을 업로드해볼까? 어제는 감성적인 걸 올렸으니까 오늘은 발랄한 걸 올려볼까?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겠다. 발랄이라고 하면 무조건 원피스지. 장소는 어디에서 할까? 음.. 요 앞 잔디 운동장에 가서 찍고 와야 겠다. (퇴장)

지아: 나왔어! 영? 서화 어디 갔지? 사진 찍으려고 밖에 나왔나? 요즘 들어 팔로워 수가 많이 늘고 있던데 열심히 하나 보네. (소파에 누워 쉬려고 한다)

서화: 어 지아 왔네. 나 사진 찍고 왔어. 사진 좀 골라 주라. 나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요 엄청 눌러주고 팔로워 수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. 대박이지. 칭찬도 엄청 해주시고 내가 사진이랑 같이 올리는 글에 공감도 잘해줘서 요즘 인스타 할 맛 난다! 팔로워들이랑 소통한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진짜 재밌어.

지아: 야 너 그러다가 인스타 중독되는거 아니야? 그거 엄청 무서운 거다. 한 방에 혹 갈 수도 있어. 인스타로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것들은 하지마!

서화: 당연하지! 모르는 사람들이 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는 게 너무 신기하다. 그리고 또 DM이 와서 대화하다 보면 나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.

지아: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. DM으로 사기 치는 사람들 엄청 많은 거 알지? 저번에도 뉴스에 한번 나왔었잖아.

서화: 내가 호구도 아니고 딱 보면 알지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하셔.

지아: 그래.

(암전)

지아: 기억아 밥 먹어

서화: 알았어 나 댓글 좀 달고

지아: 댓글 그만 달고 밥 먹어. 밥 먹고 댓글 달아도 되잖아.

서화: 알았어 그러면 지금 달고 있는 댓글마저 달고 갈게.

지아: 야 밥 먹으라니까

서화: 아 알겠다고!! 기억아 이것 좀 봐봐 요즘 진짜 핫한 인플루언서한테 연락 왔다. 대박이지 진짜 대박이지. 내일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서 파티하는데 그때 혹시 올수 있냐고 물어봄.

지아: 야 우리 내일 고등학교 때 애들 만나서 놀기로

했잖아.

서화: 아~ 그러네. 나 못 간다고 해줘라.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.

지아: 이번에는 선생님까지 오시는 거 알잖아. 네가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하도 연락 넣어서 이번에 오시는 거 아니야!

서화: 선생님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나 정말 이 파티에 가야 돼. 가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랑 사진 찍어서 올리면 팔로워 수 백퍼 늘어난단 말이야.

지아: 너 인스타는 그냥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용도로만 쓰겠다고 했잖아.

서화: 어!! 소통하는 용도로만 쓸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해. 내가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해줘야지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보고 만족한단 말이야. 그러면서 소통하는거지.

지아: 그럼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해.

서화: 네가 가서 대충 말해줘.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서 동창회 못 온다고.

지아: 그런 건 당사자가 말해야지 그리고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! 나 소심해서 학창 시절 때도

애들이랑 잘 못 어울렸잖아. 너랑 같이 가야지 재미있단 말이야.

서화: 난 진짜 이 파티에 가야 돼. 미안해.

지아: 어 알겠어. 그럼 나도 안 가.

서화: 아 왜~ 그래도 너는 가야지.

지아: 너 없으면 나 혼자서 혼밥하고 오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.

서화: 알겠어. 그럼 내가 갔다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.

지아: 지금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.

서화: 그럼 뭘 어떡하라고 나 진짜 못 가.

지아: 그럼 선생님께 연락드려.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.

서화: 알았어. 내가 전화드릴게 (전화를 건다)

선생님: 여보세요.

서화: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 서화예요.

선생님: 어. 그래 왜 전화했니? 내일 모임 때문에 전화한 거야?

서화: 네. 선생님. 제가 선생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연락을 계속 드렸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겠다고 하셨는데. 제가 모임에 못 나갈 것 같아요.

선생님: 오. 무슨 일로 못 오는 거니?

서화: 저한테 중요한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

선생님: 아니야 아니야.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건 당연한 거지. 선생님이랑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잖아.

서화: 선생님 바쁘셔서 이번에 스케줄도 간신히 빠신 건데 정말 죄송해요.

선생님: 괜찮아. 나도 모처럼 너희들이랑 놀고 좋지. 물론 네가 안 오는 건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되니까. 그 기회 꼭 잡길 바랄게.

서화: 네!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.

선생님: 그래 끊는다.

서화: 네.

서화: 됐지? (지아를 바라보며)

지아: 어 잘했어.

서화: 그럼 나 파티에 갔다 온다.

지아: 그래.

(암전)

서화: (웃으며) 와 인플루언서들이랑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정말 효과가 크구나. 팔로워 수가 이렇게 늘 수 있다니. 대박! 심지어 나한테 광고랑 협찬도 들어오네.

지아: 너 연예인 아니다.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. 너 그런 거 본 적 있지 가상 세계에 너무 빠져서 현실의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. 그렇게 되면 안 된다.

서화: 내가 바보냐 절대 안 그러지. 나는 안 해야 될 때는 딱 안 하고 해야 될 때만 조금 하고 그럴 거야. 그리고 현실에 있는 내가 진짜니까 현실에 있는 나를 더 가꿔야지. 어떻게 인스타로 나를 다 표현할 수 있겠어.

지아: 인스타에 중독되면 현실 세계의 나 자신 보다 인스타 속 자신을 더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

사람들이 있어. 은근 많다!

서화: 그런가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.
게임 중독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인스타 중독
자들은 잘 모르겠네.

지아: 아무튼 조심해서 사용해! 절제가 잘 안되면 시
간을 정해놓고 하고.

서화: 에이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.

지아: 그래도!

서화: 알았어 알았어.

지아: 야 일로 와봐 내가 케이크 사 왔어.

서화: 응 우리 생일 내일이잖아.

지아: 좀 있으면 12시잖아. 생일 되는 날에 바로 서로
축하해 주고 초 불고 케이크 먹고 싶어서!

서화: 그래! 근데 우리 신기한 게 어떻게 같은 날에 태
어났냐. 같은 연도에,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 나
너 말고 본 적 없다.

지아: 나도! 본 적 없음.

서화: 근데 무슨 케이크 사 왔어?

지아: 기대하셔 내가 진짜 맛있는 케이크 전문점에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 사 왔어.

서화: 와 여기 생크림 예술이잖아! 잘했어 잘했어. 어 른 세팅하자.

지아: 그래.

서화: 나 초 부는 거 찍어 주라.

지아: 앵 그럼 나는 언제 불러?

서화: 나중에 불면 되잖아

지아: 그건 양보 못해.

서화: 왜 어린애같이 이런 거에 집착해?

지아: 집착이라고? 너도 생일이지만 나도 생일이야. 그리고 이 케이크 내가 사 왔잖아.

서화: 진짜 유치하다. 케이크 내가 내일 똑같은 걸로 사다 줄게! 그냥 나 단독으로 초 부는 거 찍어 주면 안 될까? 인스타에 올리고 싶단 말이야.

지아: 그럼 너가 내일 케이크 사서 찍으면 되겠네.

서화: 그깃 초 부는 게 뭐라고 좀 양보해 주면 안돼?

지아: 그냥 같이 찍은 거 올리면 되잖아. 삼각대 놓고 같이 초부는 거 찍자. 나는 내 얼굴 네 인스타에 올려도 괜찮아.

서화: 나만 찍어주면 안 될까? 부탁이야.

지아: 내가 말했잖아 안된다고. 너 솔직히 내가 부끄럽지. 내가 항상 꾸미는 거에 관심 없고 후줄근하게 다니니까 그런 거잖아. 지금도 나는 트레이닝복 입고 있으니까 같이 찍기 싫은 거잖아. 아니야?

서화: 하... 그냥 찍지 말자. 입맛도 떨어졌다. 우리 케이크 다음에 먹자. 나 내일 약속 있으니까. 먼저 잘게 (퇴장)

지아: 아... 생일 되자마자 싸우냐. 좀 이따 사과할까?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나 혼자 초 불고 다 먹어버릴 거야.

(다음날)

서화: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받은 척 좀 해볼까? (전화를 건다) 안녕하세요. 혹시 명품 대여하는 곳이 맞나요. 아~! 그러면 명품 가방이랑 옷 좀 대여할 수 있을까요? 그럼 잘 좀 배송해 주세요. (배송이 오고) 와! 진짜 예쁘다! 선물 받은

척 올려볼까! (선물 받은 척 사진을 찍어 인스타 계정에 올린다) 와우 반응 장난 아닌데. 생일 축하한다고 나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네. 대박. 완전 행복해. 생일날 이렇게 축하 많이 받는 건 또 처음이네.

지아: (엄마한테 전화를 건다) 엄마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?

엄마: 어? 오늘 무슨 날이야? 지금 엄마 바빠 틈 들이지 말고 빨리 용건만 말해.

지아: 아니에요. 엄마 바쁘신데 전화해서 죄송해요.

엄마: 죄송한 거 알면 다행이다. 다음부터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전화하지 마.

지아: 알겠어요. 죄송해요. (지아 인스타를 확인한다) 영 이게 뭐야. (서화에게 간다) 너 이것들 다 뭐야? 너 진짜 인스타에서 사기 치려고 작정을 했구나.

서화: 아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. 내가 알아서 할게. (속삭이듯이) 찌질이 주제 계속 간섭이야

지아: 야 너 뭐라고 했어 지금.

서화: 찌질이 주제에 왜 계속 간섭이냐고! 아무리 같이 산다고 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자.

지아: 나는 네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잖아.

서화: 걱정? 너나 걱정해. 맨날 내 뒤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. 맨날 이거 지적 저거 지적 아주 진절머리 나.

지아: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.

서화: 네 행동을 좀 돌아봐봐.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 하는 거야? 나 요즘 너무 답답해. 이 답답함을 해소 하려고 인스타 하는 거라고 제발 내 방에서 나가주면 안 돼?

지아: 너는 지금까지 내 조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?

서화: 어!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.

지아: 와! 너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지 않았잖아!

서화: 맘대로 생각해 맘대로 나 이기적이어 됐지!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라고 제발!!!!(지아를 밀쳐낸다)

지아: 요즘에 너무 인스타에 빠져서 나랑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있지도 않는 게 속상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너무 날카롭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! 진짜 제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. 뭐라고 말하지도

못하겠네.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해 놓고서는... 진짜 어이없어.

서화: 아니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간섭질인데 따로 살라고 할까?

지아: 어디 가게?

서화:

지아: 와 이제 대놓고 무시한다고?
(인플루언서들의 모임에 또 가서 사진을 찍고 올린다)

지아: 그래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. 어 이모네. 여보세요.

서화 엄마: 어 잘 지내고 있지? 이번에 할머니 병세가 더 악화돼서. 좀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서화 전화 좀 잘 받으라고 해.

지아: 네.

서화: (밖에서 들어온다)

지아: 너 이리 와봐

서화: …….

지아: 너 무시 좀 그만하고 좀 와보라고!

서화: 아 왜 또!! 또 간섭질하게?

지아: 아니 이모한테서 전화 왔다고 너 왜 이모 전화를 안 받아? 근 몇 년 간 집에 가지도 않고 이번에 할머니 병세가 더 악화되셨데. 어렸을 적에 너희 할머니가 우리한테 잘해 주셨잖아. 너도 그런 할머니를 좋아했었고. 이모 전화 좀 받고 집에도 좀 가봐.

서화: 평소 나한테 관심도 없다가 가족모임 때만 오라고 하고 가면 친한 척하고 그런 엄마 필요 없어.

지아: 너 무슨 그런 소리를 해. 그래도 너를 키워주고 나한테도 자상하게 대해 주셨던 분이신데

서화: 무슨 자상하게 대해주셨다고 해 너한테 고작 잘지내라고 돈 몇 푼 손에 쥐어 준 걸 가지고. 나는 그런 엄마 말고 나에 대해 궁금해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. 진짜 나를 아껴줄 사람.

지아: 너 그거 알아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기 전에 너가 너를 사랑해 줘야 돼.

서화: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? 한 번도 나를 사랑해

본 적이 없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.

지아: 그래 나도 너랑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 하지만 너는 달라 사랑이 어떠한 감정인지 잘 알고 있어. 수많은 너의 팬들을 떠올려봐 그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너를 사랑해봐 그들이 너를 좋아하는 까닭이 있을 거야.

서화: 그들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 너도 잘 알잖아. 내가 내 생활 모습과 전혀 다른 사진을 찍어 올린다 걸.

지아: 너의 게시물이 다 가짜라는 건 알아 하지만 게시물과 함께 쓴 글은 진심이잖아. 너의 게시물에 쓰여있는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야. 너의 팔로워 대다수는 너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너의 진심이 담긴 글을 보고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. 네가 올린 게시물의 댓글만 봐도 그렇잖아. 웃고 싶을 때나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 궁금할 때 또는 위로가 필요할 때 너의 계정에 들어와 게시물들을 본다고. 너, 네가 꾸며내는 모습 말고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봐!

서화: 그건 안돼! 그들이 모두 나를 떠나면 어떻게! 그렇게 난 또 혼자가 될 거야.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만든 인기 계정인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! 그건 너무 무모한 도전이야. 내가 이 계정

으로 돈도 벌고 있는데 그건 안돼! 광고 해달라는 사람들이 끊기면 어떡해.

지아: 팔로워들이 너의 계정을 팔로우 취소를 할 수도 있어. 하지만 너의 본래 모습을 밝히고 너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으면 너는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만끽할 수 있어.

서화: 네 계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싹게 말할 수 있는 거지. 내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져봐 내가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? 너는 왜 내 입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막 말할 수가 있어?

지아: 나는 너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말한 거야. 어떻게 하면 너가 더 행복할 수 있을지. 나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. 내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라고!!

서화: 이렇게 소리를 꺽꺽 치면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야? 너는 왜 항상 나만 생각해? 너도 너 자신에 대해 좀 생각해 봐. 내가 무슨 너의 아바타니?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?

지아: 너는 내 말을 아예 듣기가 싫구나. 이렇게 계속 말해봤자 뭐해. 듣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. 너도 너 자신에 대해 좀 생각해 봐. 이런

말 듣기 싫으면. 너가 생각 없이 행동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잖아.

서화: 뭐라고? 아마 내가 너보다는 나를 더 생각할걸?

지아: 아니.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. 이쁜 옷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거짓으로 꾸며진 자신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겠지.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. 어떤 게시물을 올려야 팔로워들이 좋아할까? 이런 생각으로 너를 치장하고 있는 거잖아! 그거는 너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지. 다 팔로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지.

서화: 네가 인스타그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.

지아: 인플루언서들만 인스타그램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? 나도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 하고 있고 나도 내 계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스타그램에 대해 잘 알아.

서화: 우리 더 얘기해봤자 싸우기만 하니까 그만 얘기하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.

지아: 그래.

서화: (혼자 생각하며 말하기) 나에게 대해 생각하라고? 나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. 근데 내가 글을 잘 쓴다는 것도 점점 더 거짓된

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. 생각해 보면 지아가 하는 말이 다 맞을지도 몰라. (지아에게 가서) 그동안 나는 계속 사랑받기를 원했지. 하지만 사랑하는 첫 번째 순서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줄 오늘 알았어.

지아: 나도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아직 나도 나를 잘못 사랑해 주고 있어.

서화: 간섭 좀 그만하라고 말했던 거 미안해.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위해 해준 말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듣기 싫다고 화만 내고.

지아: 아니야. 나도 너가 계속 말 안 해줬으면 하나하나 꼬투리 잡았을 거야. 네 덕분에 내가 계속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. 처음에 네가 간섭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내 말을 왜 간섭하는 걸로 듣는지 몰랐어.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간섭을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.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. 너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.

서화: 나도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받기 위해 행복한 척, 즐거운 척 애쓰는 것도 이제는 지치는데 너가 말한 대로 이제부터 내 본 모습을 올려볼까?

지아: 그러면 좋지만.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돼. 좀 더 생각해 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계정을 운영하는 게 더 좋을지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하면 좋을 것

같아.

서화: 그래. 너랑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. 왜 그렇게 성질냈나 몰라.

지아: 우리가 그동안 좀 예민해져 있어서 그렇지 뭐. 지금 이렇게 쌓여있던 것들을 풀어서 다행이다.

서화: 그러게.

(무대를 바라보며)

서화: 인스타로 인해

지아: 나는 나 자신과

서화: 끊임없는 대화를 했지.

지아: 생일 때도

서화: 모임 때도

지아: 나는 계속해서 나와 갈등을 빚었어.

서화: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.

지아: 이로 인해 나는 나와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지.

지아: 인스타는 나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

서화: 나의 내면을 보게 해주었어.

서화, 지아: 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?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과연 나 자신일까?